

16

신앙생활의 실천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약 3:1~12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168장 (내 입술의 말과)

오늘 배울



1. 혀의 특징과 혀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를 압니다.
2.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을 압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약 3:2)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약 3:6)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이요 죽이는 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데도 내 형제들 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약 3:8~10)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 141:3)

Set a guard, O LORD, over my mouth; Keep watch over the door of my lips.
(Ps 141:3)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 2 시편 기자는 왜 자신의 입 앞에 파숫군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야고보서 3장을 읽고, 혀의 특징을 5가지 이상 찾아서 적어봅시다.
- 2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말로 인해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구분	상처를 주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가정		
학교		
교회		

3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읽고 아래 그림의 ♥안을 채워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르고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4

학교에서 친구들이 사용하는 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욘 27:4

화

시 35:28

화

잠 18:8

수

잠 25:11

목

엡 4:29

금

벧전 4:11

토

요일 3:18



혀로 만든 요리

철학자 크산투스는 만찬에 함께 할 친구들 몇 명을 초대한 다음, 그의 하인 이솝에게 시장에 가서 최고급 요리 재료를 사오라고 일렸습니다. 그러나 이솝이 사온 것은 동물의 혀뿐이었습니다. 요리는 이 혀로 양념만 다르게 하여 음식을 차렸습니다. 혀 요리만으로 식사가 베풀어졌습니다. 화가 난 크산투스는 성난 목소리로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요리 재료들을 사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솝은 말했습니다. “혀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혀야말로 문명 사회로 걸속하고 진실과 이성을 다스리며 신에게 사랑과 찬미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날, 크산투스는 하인에게 다시 시장에 가서 이번에는 가장 나쁜 요리 재료를 사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솝은 혀를 사들고 왔습니다. “뭐라고! 이번에도 혀를 사왔어?” 크산투스는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인은 대답했습니다. “혀라는 것이 확실히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투쟁과 다툼을 벌이고 소송이라는 것의 발명자이며 분규와 전쟁의 근원입니다. 또 혀는 실수와 거짓말과 비방과 신에 대한 불경스런 말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질문 있어요~



창세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 6:1~2)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사를, 구원 얻을 후사(後嗣)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부리는 영들(히 1:14)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도 인간과 유사한 육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천사에게는 육체가 없으며 따라서 여자와의 육체관계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사들은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간다’(마 22:30)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 4:25~26)”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말씀에 나온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동시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게 된 예수님의 그림자도 됩니다. 아벨이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대신 주신 생명이 셋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태어난 생명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셋의 자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어 있고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구별하였을까요? 딸에겐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상속받지 못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이 없는 자, 즉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전통과 본을 따르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섞임으로 타락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고, 이런 현상은 홍수 이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5)

그러하여 대홍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